

‘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한앤컴퍼니에 팔렸다

(사모펀드)

주식 53.08%·3107억원에 양도
국내 매출만 투자하는 사모펀드
작년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 인수
“지배구조 개선하고 경영 효율화”



“눈물의 사죄를 했지만...”. 지난 4일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는 홍원식 회장. 홍 회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은 결국 58년 역사를 가진 회사의 경영권을 외부에 넘기게 됐다. 뉴스스

‘불가리스 논란’으로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불러 일으켜 홍원식 당시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남양유업이 국내 사모펀드(PBF)에 팔렸다.

남양유업은 27일 최대주주인 홍원식 전 회장을 비롯한 2명이 남양유업 보유주식 전부를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대표 한상원·이하 한앤코) 유한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지분은 홍 전 회장의 지분 51.68%를 포함해 부인과 동생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53.08%로 37만8938주다. 매각가격은 3107억2916만원이다.

주당 매각단가는 82만원으로 27일 종가 기준의 남양유업 주가 43만19000원보다 두 배 가량 높다. 하지만 현 남양유업의 주가가 기업 원래 자산가치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음을 감안하면 저렴한 가격에 매입했다는 것이 시장 평가다.

한앤코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홍원식 전 회장의 보유 지분 전량을 포함한 경영권 일체를 확보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금 지급 시기는 양측이 합의할 수 있지만, 8월 31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대금 지급이 이뤄지고 주식이 양도되면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는 한앤코 19호 유한회사로 변경된다.

한앤코 19호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한앤코는 국내 기반 매출에만 투자하는 사모펀드다. 그동안 웅진식품, SK해운 등 제조·해운·유통·호텔 분야에서 25건의 기업 경영권을 인수했다. 2013년 웅진식품을 약 950억 원에 인수해 5년 만인 2018년 지분 74%가량을 대만 식품회사 통이그룹에 2600억 원에 매각했다.

지난해에는 대한항공 기내식 및 기내 면세품 판매 사업을 약 9900억 원에 인수했다. 현재 총자산 규모는 24조2000억 원이다. 계열사 매출은 13조3000억 원, 고용인력은 약 3만 명이다.

한앤코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유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을 효율화해 기업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결정과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전문 업무 집행인원을 독립 제조·해운·유통·호텔 분야에서 25건의 기업 경영권을 인수했다. 2013년 웅진식품을 약 950억 원에 인수해 5년 만인 2018년 지분 74%가량을 대만 식품회사 통이그룹에 2600억 원에 매각했다.

●2013년 대리점 갑질 파문부터 위기 촉발
이로써 홍두영 창업주가 1964년에 설립한 남양유업은 창업 58년 만에 최대주주가 바뀌는 변화를 맞게 됐다. 잘 나가던 남양유업의 위기는 2013년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영업’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시작했다. 영업사원이 대리점에 물

량을 강제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회사는 가맹점주를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해 불매 운동이 일었다. 결국 김용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사과했다.

홍두영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마약사건 연루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리면서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회사 이름이 거론된 것도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에는 경쟁사인 매일유업을 비방해온 사실로 또 한번 지탄을 받았다.

결정적으로 4월 1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의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직격탄을 맞았다. 질병관리청이 인체 대상의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또 다시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남양유업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했다. 결국 홍원식 전 회장은 5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 사퇴와 함께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각종 파문과 구설에 시달리면서 실적 역시 계속 악화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매출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1조원 아래(9536억 원)로 떨어졌다. 영업손실은 764억원을 기록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아, 전기차 픽업 충전 시범 서비스 론칭

기아가 전기차 고객의 충전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픽업 충전 시범 서비스(사진)를 론칭한다. 기아의 전기차 픽업 충전 서비스는 기아의 전기를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서 차량을 픽업해 가까운 충전소에서 차량을 충전한 후 다시 고객이 원하는 위치로 차량을 인도해주는 온디맨드(On-Demand) 충전 대행 서비스다. 도서, 오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전용 앱인 ‘이온(eON)’도 선보였다. 앱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 차량 픽업 위치, 차량 수령 위치 등을 설정하고 예약을 확정하면 된다.

포스코, 덴마크 오스테드사와 해상풍력 사업 협력

포스코그룹이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기업 오스테드(Orsted)사와 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포스코는 26일 세계 해상풍력발전 1위 업체인 덴마크 오스테드사와 국내 해상풍력 및 그린수소 사업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등 그룹사의 역량을 결집해 해상풍력발전 및 연계 그린수소 사업 분야에서 오스테드사와 협업한다. 오스테드사는 사업비 8조 원 규모의 국내 최대 1.6GW급 인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6년 이후 상업운전 개시 예정이다.

한화 삼남 김동선, 한화호텔앤리조트 상무 취임



김동선 한화에너지 상무가 최근 한화호텔앤리조트로 소속을 옮겼다. 한화호텔앤리조트에 따르면 한화에너지 소속이던 김 상무는 이달 중순부터 한화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사업부에서 프리미엄 레저 그룹장(상무)을 맡고 있다. 김 상무는 승마사업을 총괄하고 레저 분야의 신사업 모델 개발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 상무는 승마선수 출신으로 한화건설에서 그룹 면세점 사업 테스크포스(TF)를 이끌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한화에너지 상무로 근무해 왔다.

여자바둑 개인전 최다상금 'IBK기업은행배' 출범



국내 여자바둑 개인전 최대 규모 상금이 걸린 IBK기업은행배가 출범한다. IBK기업은행배 여자바둑 마스터스 조인식이 27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조인식에는 IBK기업은행 윤종원 은행장, 조민정 홍보브랜드 본부장, 한국기원 임재정 총재, 양재호 사무총장, 최정 9단 등이 참석해 대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IBK기업은행이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하는 IBK기업은행배 여자바둑 마스터스의 총규모는 1억 5000만 원이며 우승상금은 3000만 원, 준우승상금은 1200만 원이다. 6월 초 아마 선발전으로 6월 중순 프로 예선에 돌입하며 8월 결승3번기를 통해 초대 챔피언을 탄생시키게 된다.

“화재 발생 가능성”...현대·기아 등 8개사, 71만4720대 리콜

현대·기아, 전자제어 유압장치 결함
볼트 EV, 배터리 이상 점검 후 교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도요타자동차, BMW코리아,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2개 차종 71만47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80(DH), 그랜저(IG), 스포티지(QL), K7(YG) 등 4개 차종 70만58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리콜 대상 자동차 (5월27일, 8개사 71만4720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G80(DH)), 그랜저(IG), 울라티(EU)
기아자동차	스포티지(QL), K7(YG)
한국지엠	볼트EV(F76E0), 트레버스(EV9KW)
르노삼성자동차	MASTER(벤, LAF23-CN), MASTER(믹스, LAF23-CN)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GLE 300 d 4MATIC, GLE 400 d 4MATIC, GLE 450 4MATIC, GLE 400 d 4MATIC Coup, GLS 580 4MATIC, GLB 200 d, GLB 220, GLB 250 4MATIC
한국도요타자동차	벤자 V6, 벤자
BMW코리아	S1000RR(이륜자동차)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790 ADVENTURE, 790 ADVENTURE R

울라티(EU) 158대는 승객 좌석의 고정 불량으로 충돌시 승객 좌석이 이탈할 가능

성이 확인돼 리콜하고, 추후 시정물 등을 감안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계획이다.

한국지엠에서 수입·판매한 볼트EV 9476대는 고전압 배터리 점검 후 이상변화가 있는 배터리는 교체하고 배터리 진단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시정조치이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마스터 2065대는 연료공급호스와 실린더 헤드 커버의 간섭으로 호스에 마모나 손상이 발생하고,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E 450 4MATIC 등 5개 차종 1177대는 에어컨 응축수 배수 호스 연결부의 조립 불량으로 응축수가 운전석 및 조수석 바닥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각종 전기

장치의 합선을 유발해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도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벤자 V6 등 2개 차종 546대는 사이드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배선 커버와 간섭돼 단선되고, 이로 인해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코리아의 S1000RR 이륜 차종 133대는 실린더헤드 내 로커암 고정용 나사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엔진오일이 누설되고, 이로 인해 제동 시 미끄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현대차, 테슬라 제치고 전기차 브랜드 선호 1위

아이오닉5·6에 대한 기대 반영
“전기차 5년 내 구입” 87% 응답

전기차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현대차가 테슬라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전기차 전시회인 ‘xEV 트렌드 코리아 2021’ 사무국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성인 1467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선호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선호하는 전기차 브랜드를 묻는 질문에서 현대자동차(36%, 534명)는 테슬라(31%, 461명)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가 1위를 한 것은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뒤이어 기아(13%, 184명), 포르쉐(4%, 65명), 벤츠(3%, 46명), BMW(3%, 43명), 제네시스(3%, 39명) 순이었다.

현대차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진 원동력은 사전계약 첫 날에만 2만3760대가 계

약되며 역대급 돌풍을 일으킨 아이오닉 5 출시와 내년에 공개 예정인 중형 전기세단 아이오닉 6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차 구매 희망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5년 이내에 구입하겠다’는 응답자가 87%로 전년 대비 23%나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구매의사를 보인 구매 희망 시기는 ‘2~3년(42%, 601명) 이내’이다.

전기차 구입 시 고려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최대 주행거리(32%, 461명)’와 ‘충전소 설치(23%, 341명)’가 높게 나타났다. 전기차 적정 비용에 대한 질문에는 ‘3000만~5000만 원(58%, 842명)’이 가장 많았고 ‘5000만 원 이하(30%, 441명)’가 뒤를 이었다.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을 알고 있다는 질문에는 지난해(57%)보다 7%포인트 높아진 64%(942명)의 응답자가 ‘안다’고 답해 전기차 애터켓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원성열 기자



“BTS 세트 주세요”...전 세계 맥도날드가 보랏빛으로 물든 날

맥도날드와 방탄소년단이 함께한 ‘The BTS 세트’가 27일 오전 한국맥도날드 전 매장에서 공식 출시됐다. ‘The BTS 세트’는 맥너겟 10조각, 후렌치 후라이(M), 음료(M)와 한국맥도날드의 레시피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된 스위트 칠리 및 케이준 소스로 구성됐다. ‘The BTS 세트’를 들고 있는 방탄소년단(맨 위 사진)과 맥도날드 코엑스점을 방문한 고객들이 ‘The BTS 세트’를 주문하는 모습. ‘The BTS 세트’는 전 세계 50개 마켓에서 출시됐다. 직원들은 맥도날드와 방탄소년단의 초성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고객을 맞았으며, 매장에는 ‘다이너마이트’, ‘버터’ 등 방탄소년단의 히트곡이 울려 퍼졌다. 사진제공 | 한국맥도날드